

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

2023. 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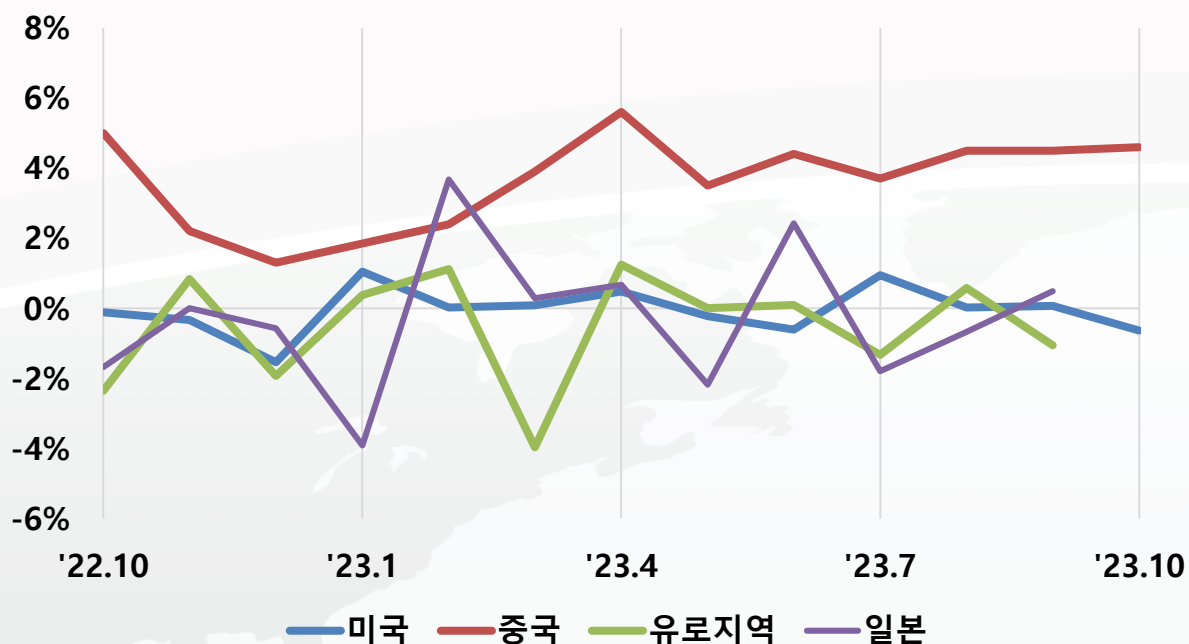
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

세계 경제동향

■ 주요국 경제동향 : 미국 둔화 가능성 확대, 중국 경기 소폭 회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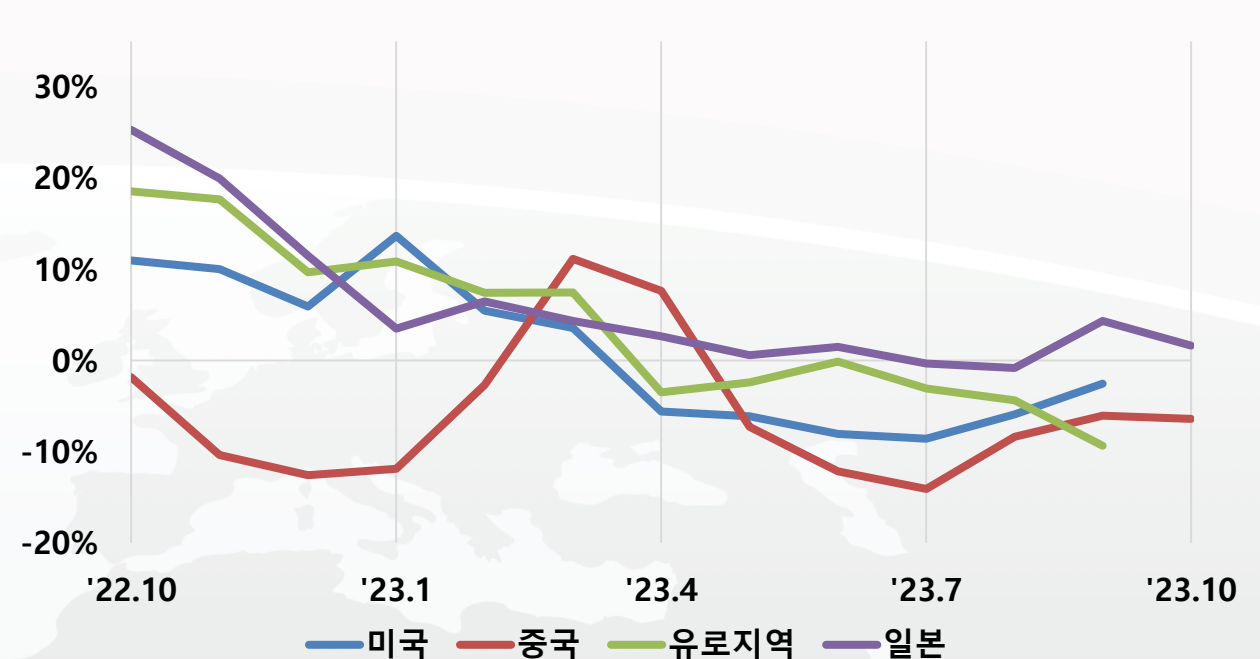
- **(미국) 3분기 GDP 성장률**(전기 대비 연율 4.9%)이 상승했으나, 10월 고용 둔화 및 물가 안정세 등으로 향후 경기둔화 전망
 - 10월 산업생산($\Delta 0.6\%$) 4개월만에 감소, 소매판매($\Delta 0.7\%$)는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
 - 10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증가폭(+15.0만명) 전월(+29.7만명) 대비 확대, 실업률(3.9%)은 전월 대비 0.1%p 상승
 -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 대비)은 유가 안정화의 영향으로 +3.2%로 하락, 근원물가 상승률도 4.0%로 전월 대비 하락
- **(중국) 3분기 성장률**(전년동기 대비 4.9%) **시장 예상 상회, 10월 생산, 소비 개선 등 경기 악화 우려 다소 해소**
 - 10월 산업생산 증가율 +4.6%(전년동기 대비)로 전월 대비 상승,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+2.9%(전년누계비)로 지속적 하락
 - 10월 소매판매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7.6%로 전월(+5.5%)대비 상승, 수출 감소폭(전년동기 대비 $\Delta 6.4\%$)은 다소 증가
- **(유로존) 물가상승률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소비 부진 지속**
 - 9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증가율 $\Delta 1.1\%$ 로 전월(+0.6%)보다 크게 하락, 소매판매 전월 대비 증가율 $\Delta 0.3\%$ 로 3개월 연속 역성장
 -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.9%로 전월(4.3%)대비 하락, 유로존 8월 산업 PMI(46.5)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악화되며 하락
- **(일본) 9월 생산 및 소비 소폭 회복했으나, 3분기 성장률**(전기 대비 $\Delta 0.5\%$) **하락 등 경기회복 지연**
 - 9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.5% 증가, 9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.4% 증가, 10월 수출(엔화 기준) 전년동기 대비 1.6% 증가

전산업생산지수



주 : 전월 대비, 계절조정 기준. 중국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Bloomberg

수출 추이



주 : 전년동월 대비, 원계열 기준. 중국(USD) 제외 각국 통화 기준
자료 : Bloomberg

국내 경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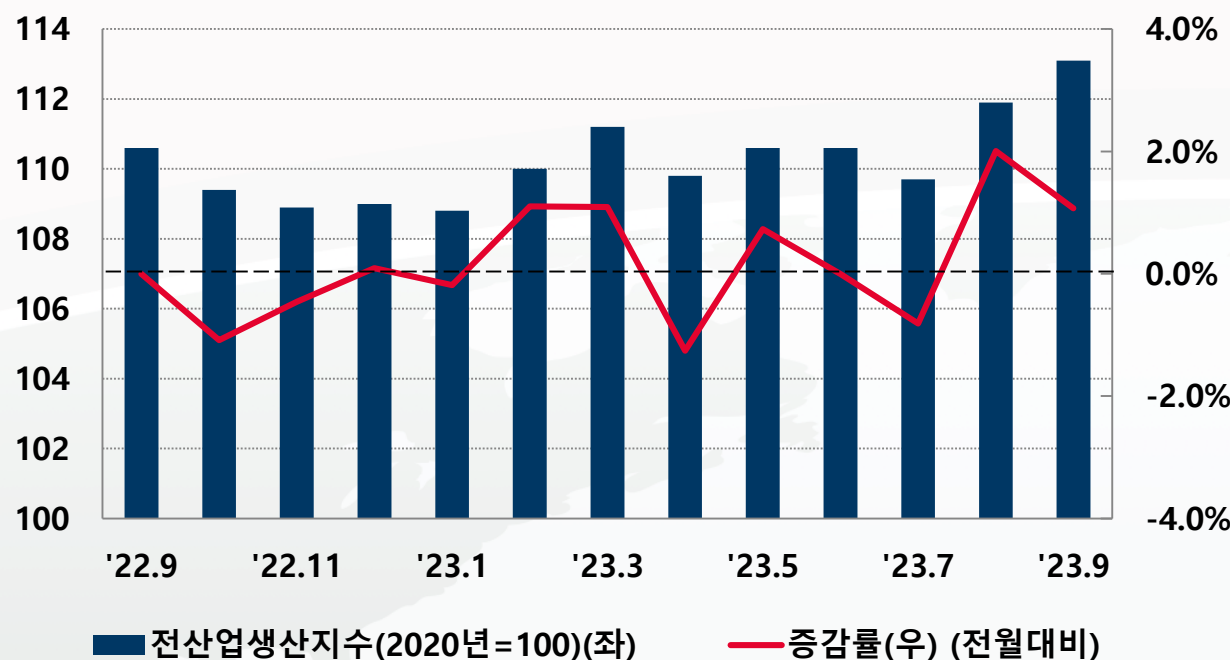
■ 산업 활동 : 2개월 연속 광공업·서비스업 생산 증가, 경기 선행종합지수도 전월대비 상승

- (생산) 9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·서비스업 등에서 모두 늘어 전월 대비 1.1% 증가
 - (광공업 : +1.8%) : 자동차(Δ 7.5%) 등에서 줄었으나, 반도체(+12.9%), 기계장비(+5.1%) 등에서 증가
 - (서비스업 : +0.4%) : 예술·스포츠·여가(Δ 4.2%) 등에서 줄었으나, 도소매(+1.7%), 운수·창고(+2.2%) 등에서 증가
- (경기) 9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(99.4p)는 건설수주액 등은 하락했으나,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해 전월대비 0.1p 상승(기준치 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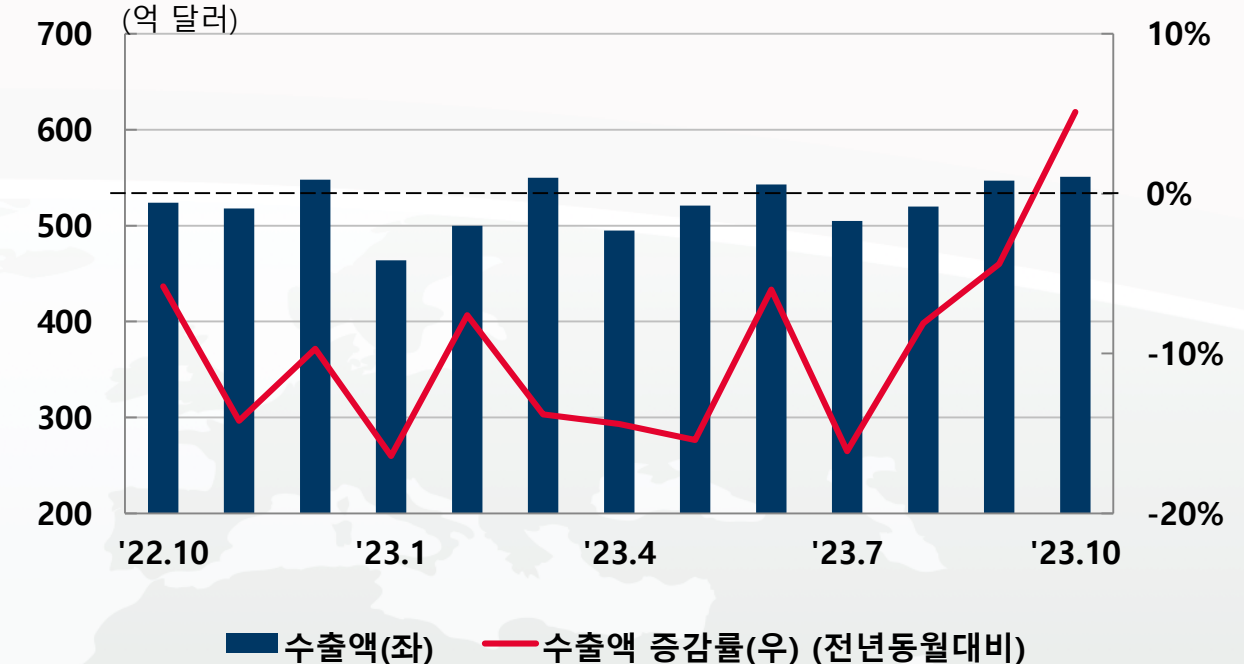
■ 수출 동향 : 자동차·일반기계·선박 등 호조로 13개월만에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환

- 10월 총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인 551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+5.1%), 무역수지(+16.4억 달러)도 5개월 연속 흑자
 - 선박(+101.4%), 자동차(+19.8%), 일반기계(+10.4%), 석유제품(+18.0%) 등은 증가, 반도체(Δ 3.1%)도 가장 낮은 감소율 기록
 - 자동차·일반기계 호조로 미국(+17.3%)은 증가 지속, 아세안(+14.3%)도 13개월만에 증가 전환, 중국(Δ 9.5%)은 감소폭 축소

전산업생산지수 (계절 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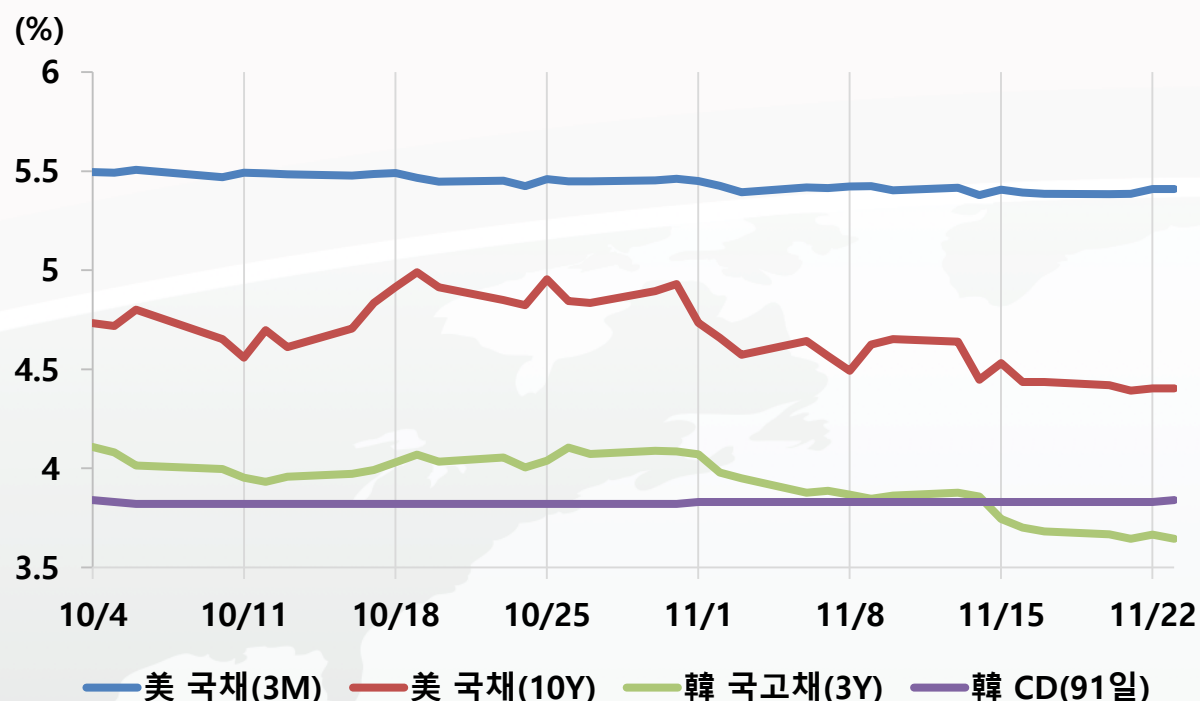
수출 추이



국내외 금융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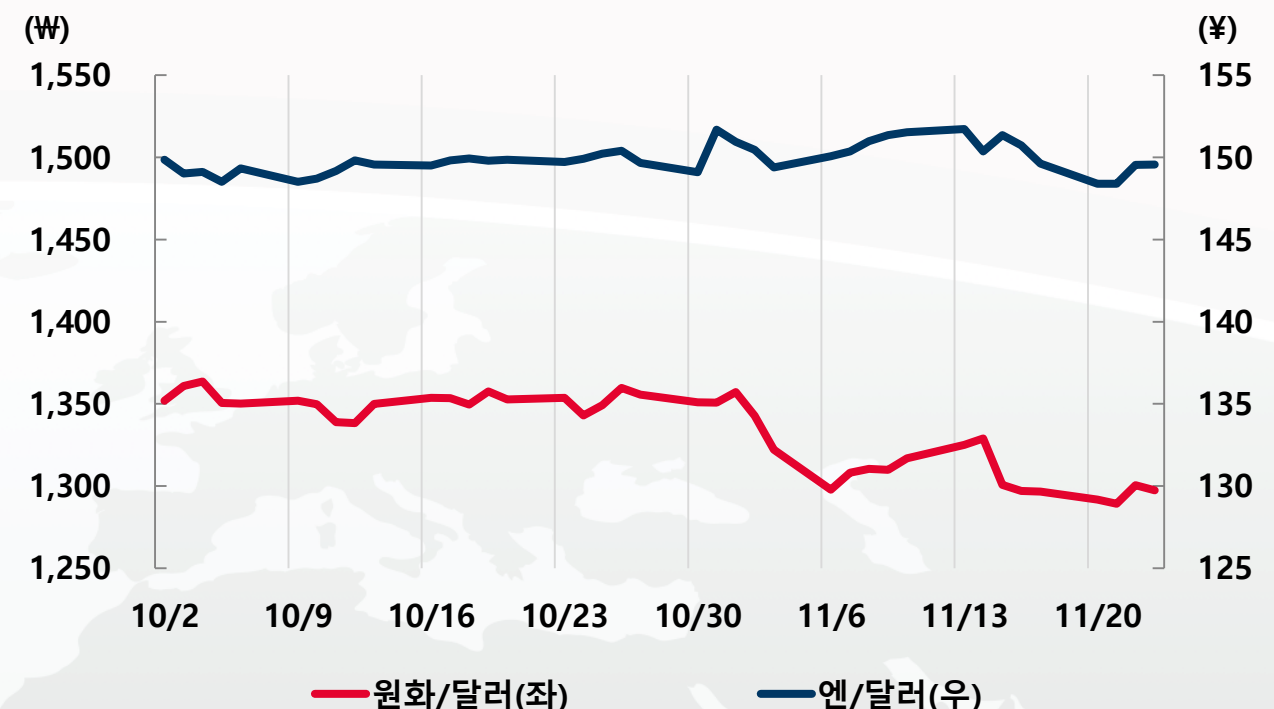
- **금리 : 미국 10월 고용 둔화 및 물가 안정세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약화되며 하락**
 - (미국) 미국채 금리(10년물)는 10월중 5%대에 육박했으나, 이후 고용 및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최근 유가 등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미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며 하락세로 반전 4.4%대 기록
 - (한국) 국고채 금리(3년물)는 한국은행 총재의 고금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언급 등으로 4%를 상회했으나, 미금리 하락 영향으로 3.6%대로 하락
- **환율 : 미국채 수익률 상승 등으로 미달러화 강세 지속**
 - (원/달러 환율) 원/달러 환율은 미금리 하락에 따른 미달러화 약세, 무역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1,289원/달러(11/21) 기록
 - (엔/달러 환율) 엔/달러 환율은 미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의 저금리 정책 지속으로 152엔/달러(11/13)로 상승한 이후 소폭 하락, 원/100엔 환율은 원화 강세로 860원/100엔대 수준으로 하락

韓·美 채권 금리 추이



자료 : Bloomberg 및 한국은행

달러 환율(對원화, 對엔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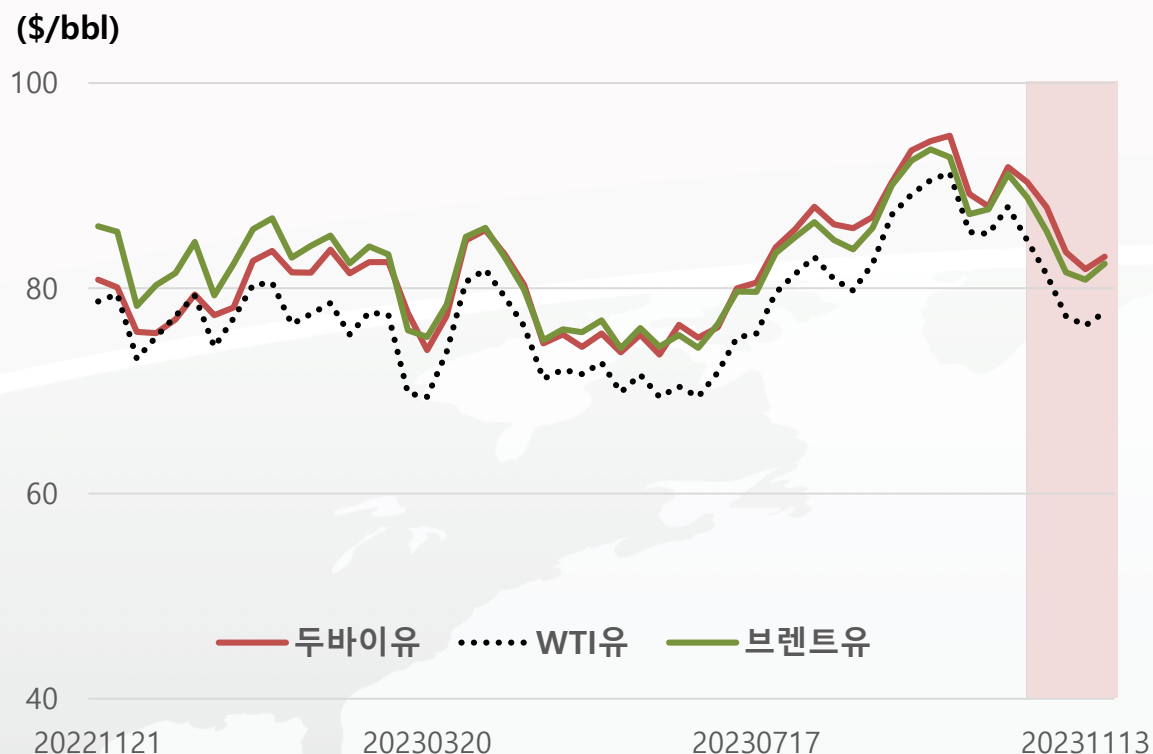
자료 : Bloomberg

원유와 천연가스 가격

■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하락,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3달러선 붕괴

- (원유) 고금리 장기화 및 경기둔화 우려,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 완화 등으로 유가 하락세를 보이며 **11월 중순 배럴당 80달러선 붕괴**(\$79.23/bbl, 11/17일), 이후 OPEC+ 추가감산 우려로 80달러 초중반대로 상승
 - 11/17일 주간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대비 905만 배럴 증가,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며 수요둔화 우려가 확산되었으나, 11/26일 OPEC+ 회의를 앞두고 감산 연장 또는 추가 감산 가능성이 제기되며 11월말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로 상승
- (천연가스) 동절기 추운 날씨 예보에 따른 난방용 가스수요 증가 전망으로 11월초 mmBtu당 3달러 중반대로 상승했으나, 이후 온난한 날씨 예보, 천연가스 재고 증가 등으로 11월 중순 3달러선 붕괴(\$2.96/mmBtu, 11/17일)
 - 11월말 미국 동북부 기온이 예상보다 더 따뜻할 것이라는 기상예보로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주간 미국 천연가스 재고 수준이 5년 평균치 대비 약 6% 높은 수준을 기록(11/17)하는 등 11월초 이후 가격 하락세

국제유가 추이



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



자료 : Koreapds(유가는 주간 가격, 천연가스 가격은 NYMEX 익월물 일일가격)

■ 10월 세계 발주량은 LNG선 외에 저조한 수준이었으나 한국의 수주는 매우 양호

• 10월, 한국은 대형 LNG선을 대거 수주하며 양호한 수주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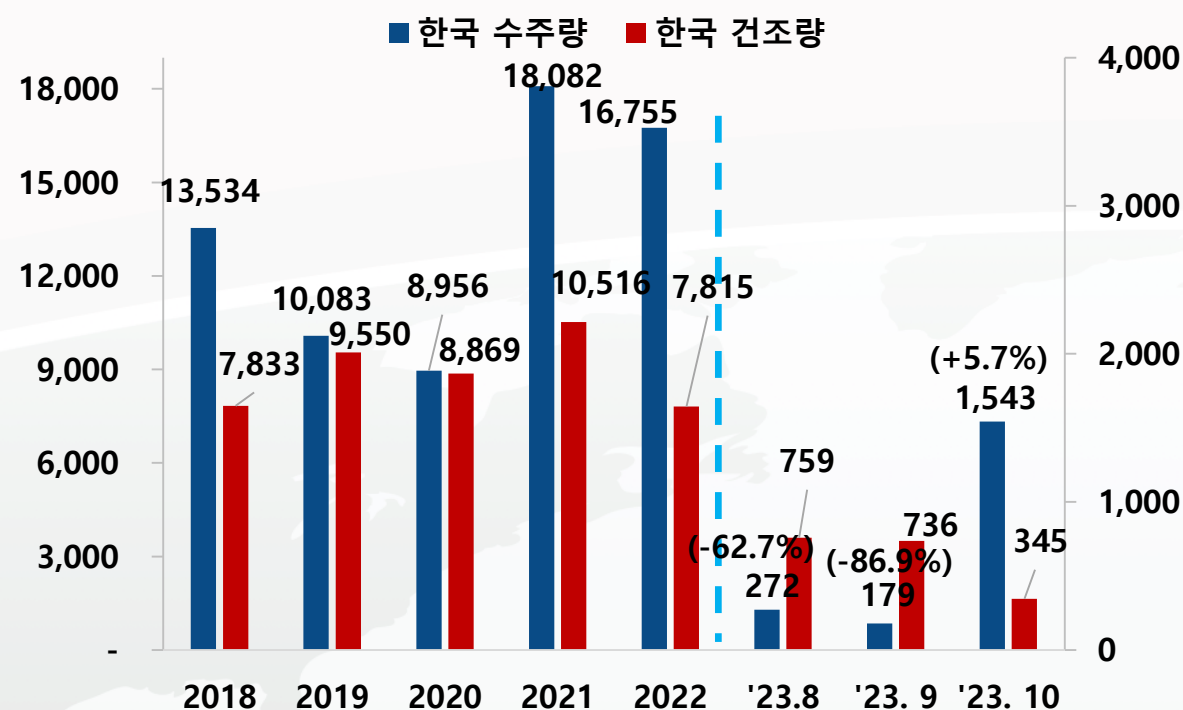
- 10월 세계 발주량은 249만CGT(전년동월 대비 $\triangle 43.5\%$), 10월 누적 발주량은 3,369만CGT(전년동기 대비 $\triangle 23.5\%$)
- 10월 한국 수주량은 154만CGT(전년동월 대비 $+5.7\%$), 누적 수주량은 893만CGT(전년동기 대비 $\triangle 41.5\%$)
- 10월 한국 수주액은 41.7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$\triangle 3.7\%$), 누적 수주액은 259.4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$\triangle 35.5\%$)
- 10월 발주 수요는 카타르발 LNG선을 제외하면 매우 부진한 수준임
- 한국은 카타르발 등 대형 LNG선 18척 수주로 중소형선 위주로 수주한 중국을 압도하며 양호한 수주실적 달성

• 10월 선박 수출은 오랜만에 양호한 실적

- 10월 수출액은 28.3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$+101.4\%$), 10월 누적 수출액은 167.8억달러(전년동기 대비 $+15.3\%$)
-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위주의 인도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생산시스템도 점차 안정화되는 것으로 추정

한국 조선업 수주 및 건조량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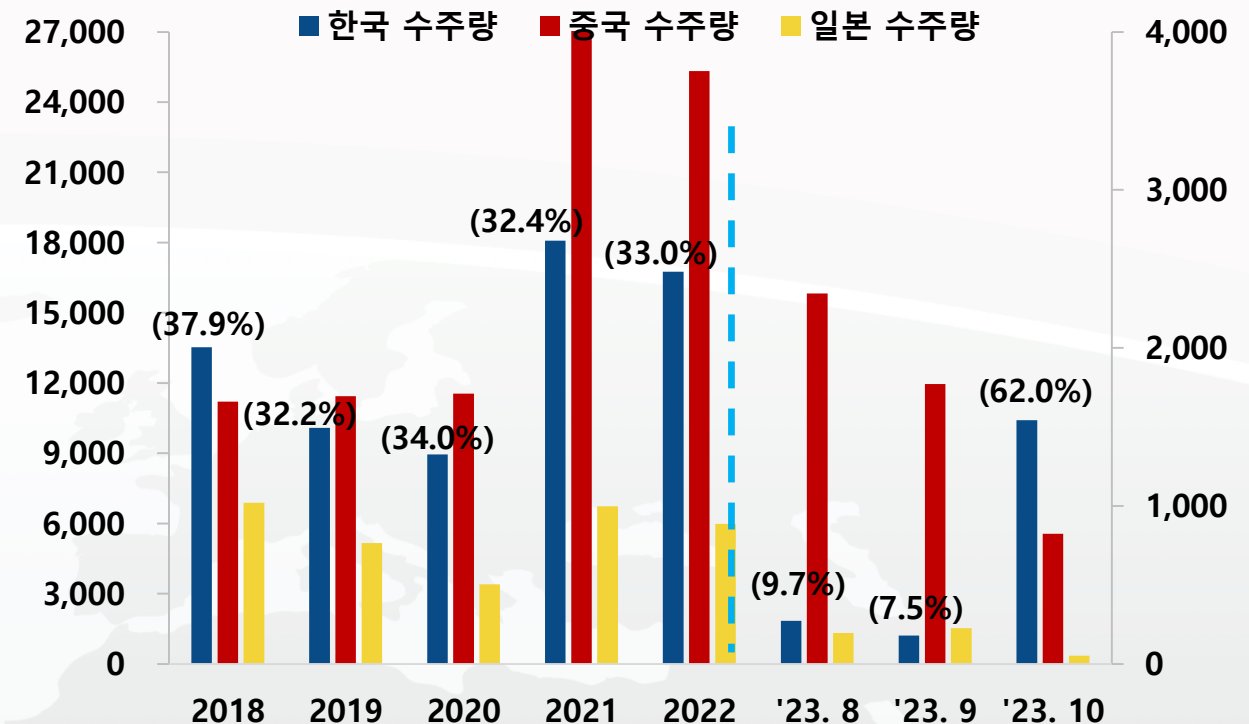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수주량 증감률

자료 : Clarkson

한·중·일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(천CGT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당해연도 및 당월 한국 수주량 점유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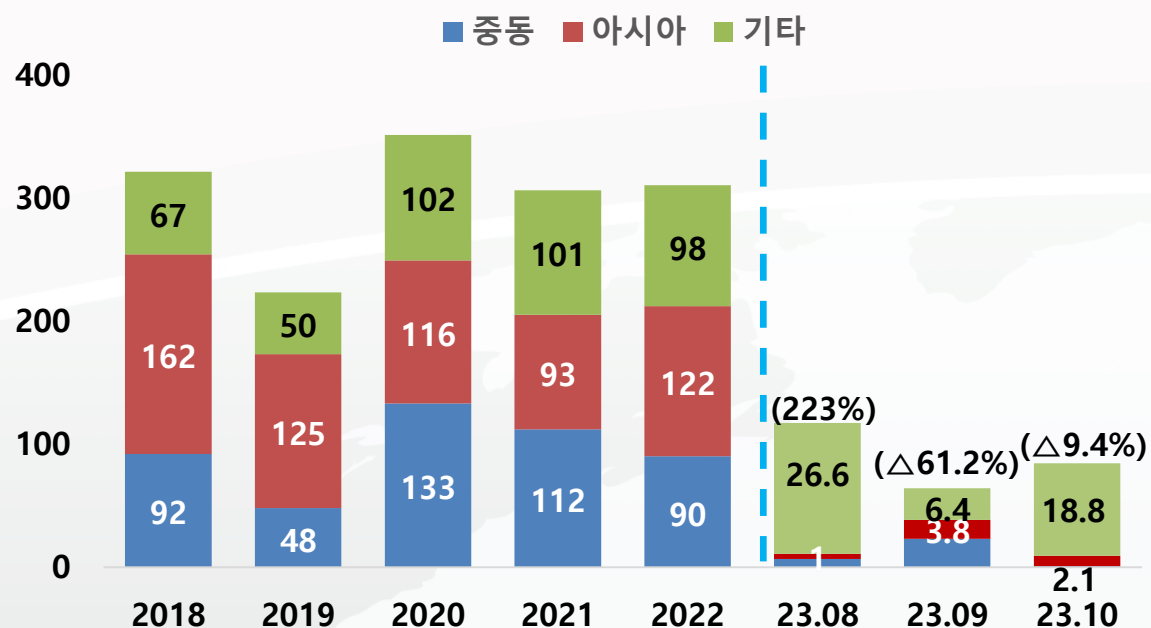
자료 : Clarkson

■ 10월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월 대비 9.4% 감소한 21.1억 달러

- (지역별) 수주액은 북미 18.2억 달러, 아시아 2.1억 달러, 중동 0.2억 달러 순
- (공종별) 플랜트 0.5억 달러(전년동월 대비 $\triangle 84.8\%$), 건축 19.0억 달러(459%), 토목 0.6억 달러 ($\triangle 96.2\%$)
- 10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25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.6% 증가한 상황으로 중동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5.8% 증가한 80억 달러, 북미 수주액은 92.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20% 증가
 - 공종별 수주액은 플랜트 110억 달러(전년동기 대비 7.8%), 건축 109.0억 달러(69.0%), 토목 13.9억 달러($\triangle 73.8\%$)를 기록
- 올해 IRA 시행에 따른 미국 생산공장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북미지역이 최대 수주지역으로 부상했으며, 4분기 수주 증가 기대감으로 올해 수주 목표액 350억 달러 달성은 유효한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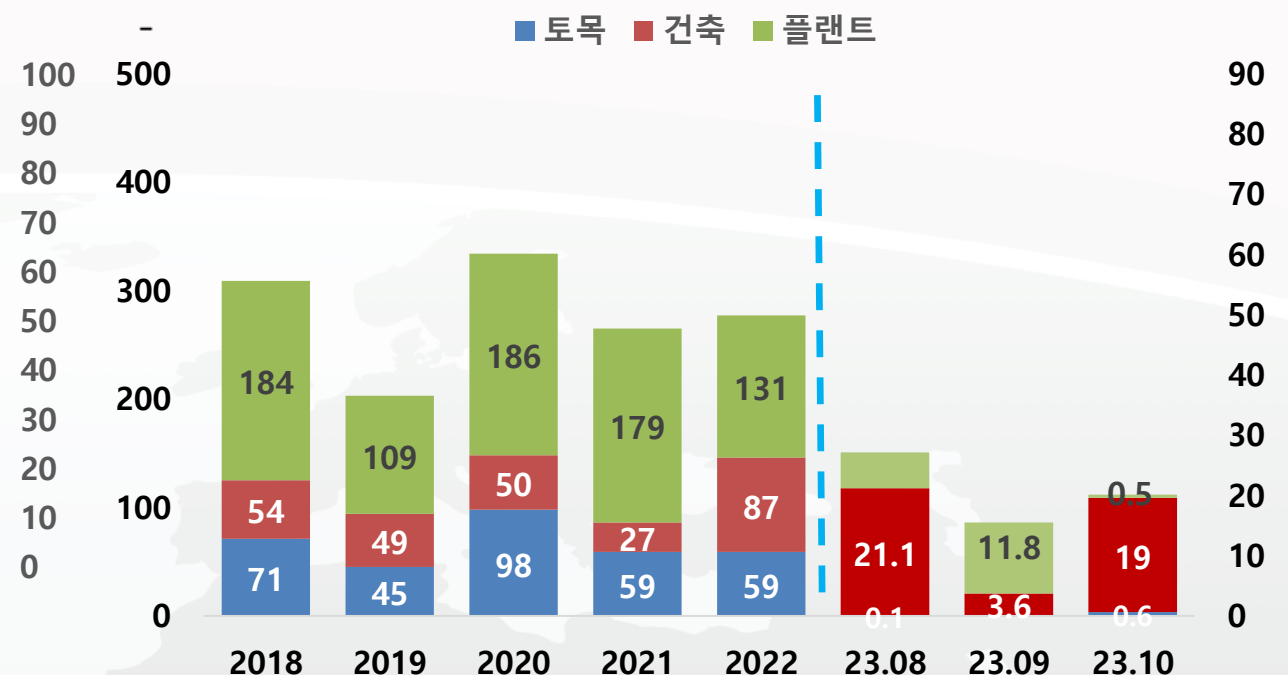
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총 수주액 증감률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공종별 해외건설 수주액 (억 달러)



자료 : 해외건설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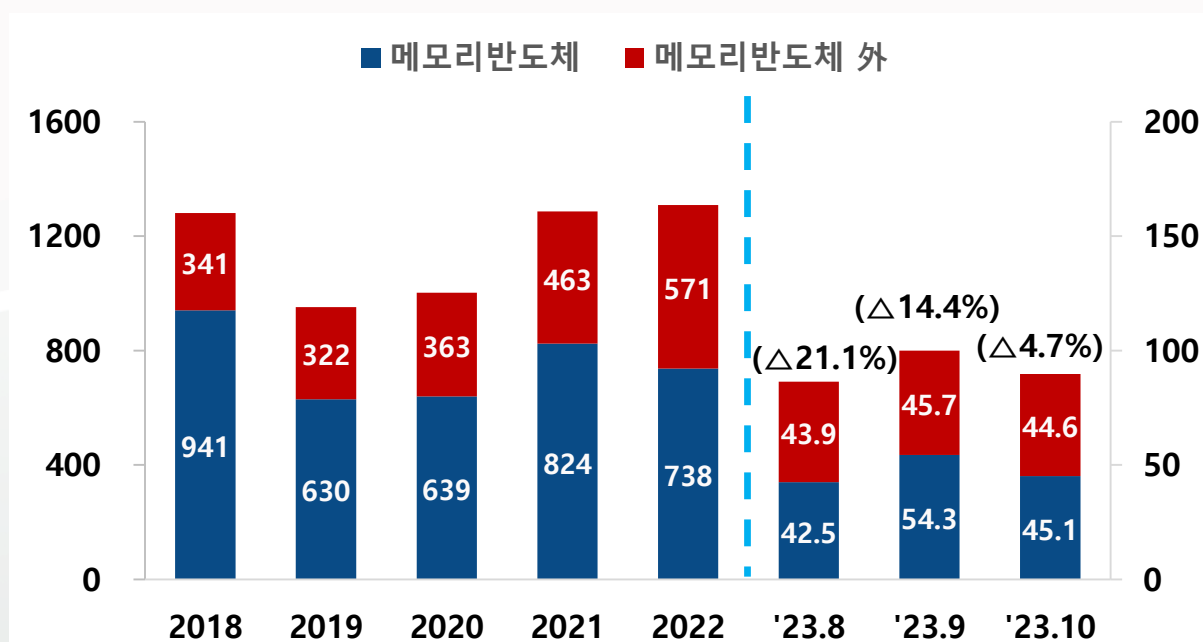
반도체·디스플레이

■ 10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증가율, 각각 전년동월 대비 △4.7%, +13.1% 기록

-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.7% 감소한 89.7억 달러로 15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2023년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
 -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D램 가격 반등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.0% 증가한 45.1억 달러 기록
 - * D램 고정거래가격(DDR4 8Gb기준, 달러) : ('22.10)2.21 → ('23.7)1.34 → (10)1.50 (트렌드포스)
 - ** 반도체 수출물량지수(2015=100) : ('22.9)373.0 → ('23.6)422.8 → (9)486.4 (한국은행)
-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7.4% 감소한 40.6억 달러 기록
 - *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% 감소한 30.7억 달러, 아날로그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% 증가한 9.7억 달러 기록
 - ** 시스템반도체 수출물가지수(2015=100) : ('22.10)96.8 → ('23.7)75.0 → (10)77.1 (한국은행)
-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3.1% 증가한 22.9억 달러로 3개월 연속 전년대비 수출 증가
 - OLED 수출은 모바일용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5.6% 증가한 16.6억 달러 기록
 - * OLED 수출물가지수(2017.12=100) : ('22.10)57.0 → ('23.7)49.2 → (10)50.8 (한국은행)

반도체 수출액 (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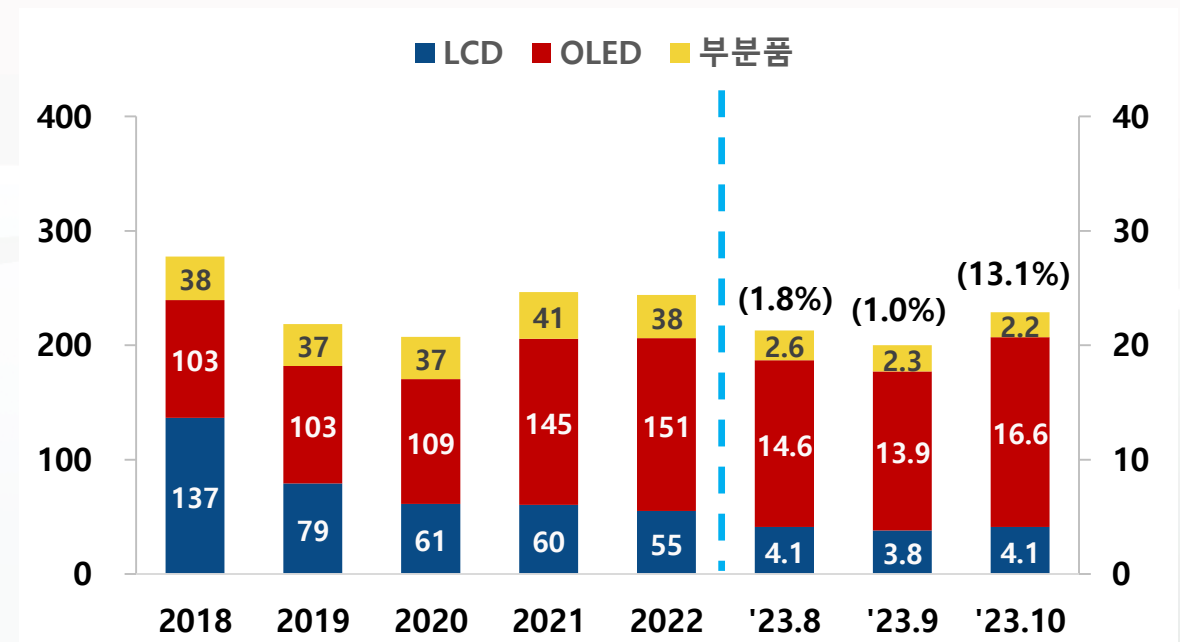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디스플레이 수출액 (억 달러)

※ 월별 데이터는 우측 축 참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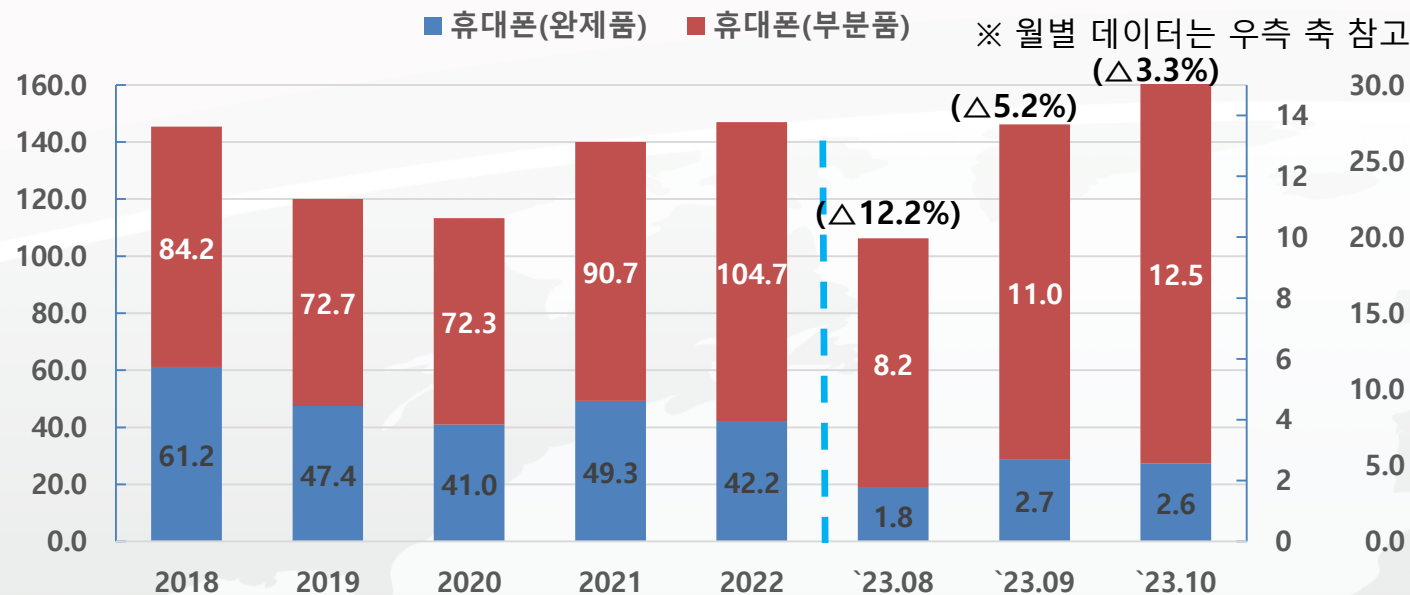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10월 휴대폰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3.3% 감소, 통신장비 수출액은 29.6% 감소

- **휴대폰 수출은 부분품 수출이 위축되고 완제품 수출이 감소세가 유지되며 전년동월 대비 3.3% 감소한 15.0억 달러 기록**
 - (완제품) 북미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유럽, 아시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 대비 10.1% 감소한 2.6억 달러 기록
 - * 10월 북미 스마트폰 수출액은 1.27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34.6% 증가, 유럽(0.99억 달러, △43.6%), 아시아(0.24억 달러, △44.9%)는 감소세 지속
 - (부분품) 전년 대비 큰 변화는 없으나 일부 국가로의 수출이 소폭 감소하며 전년동월 대비 1.8% 감소한 12.5억 달러 기록
 - * 10월 주요국 휴대폰 부분품 수출액: 중국(9.5억 달러, 전년동월대비 △0.5%), 베트남(1.9억 달러, +12.2%), 필리핀(0.6억 달러, △6.2%)
- **통신장비 수출은 전반적인 부품 수요가 감소하며 전년동월 대비 29.6% 감소한 1.33억 달러 기록**
 - (기지국 장비) 기지국 장비 완제품 수출 증가하고 있으나 부품 수출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55.5% 감소한 0.17억 달러 기록
 - * 최근 4개월간 기지국 부품 수출액 전년동월 대비 증감율: △16.1%(7월), 54.5%(8월), △6.6%(9월), △57.8%(10월)
 - (중계기·모뎀) 주요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22.8% 감소한 1.15억 달러 기록
 - * 10월 주요국 중계기·모뎀 및 부품 수출액: 미국(1,915만 달러, 전년동월 대비 △48.0%), 베트남(2,963만 달러, △1.4%), 일본(1,668만 달러, +16.0%)

휴대폰 수출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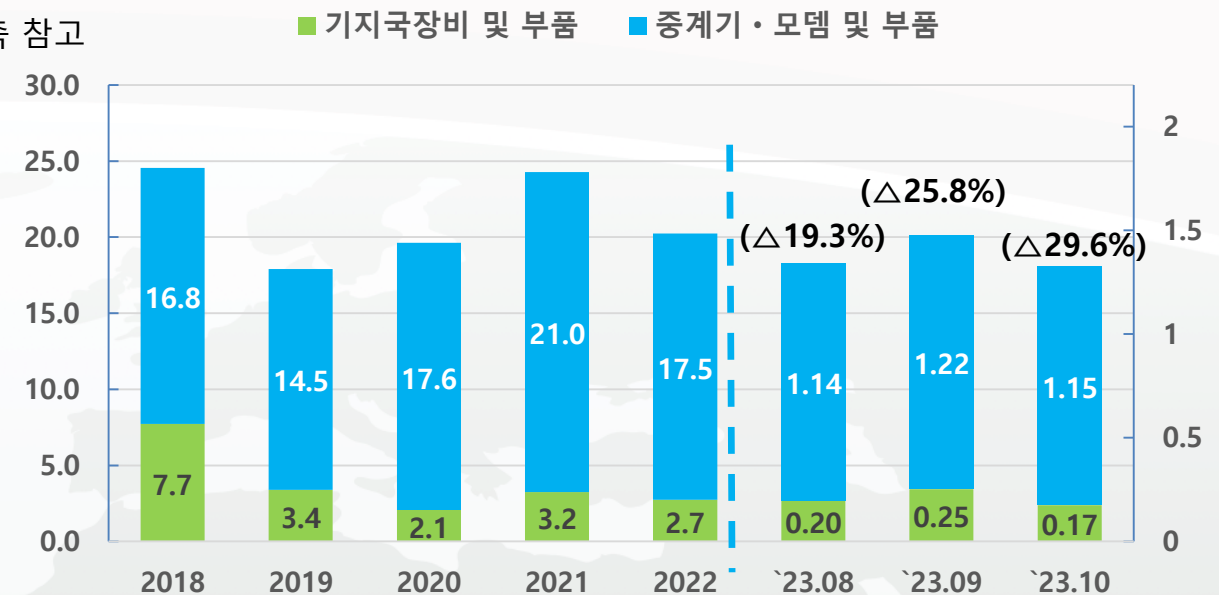
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, 산업통상자원부

통신장비 수출액

(억 달러)



주 : 괄호 안은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자료 : 무역협회